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생명존중의식과 생명존중태도에 미치는 영향

송미경*·김경란**·박천만†

계명대학교 대학원 공중보건학과

*진주중앙고등학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예술치료학과

The Effects of a Life-Respect Education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Values on Life-Respect

Mi-Kyeong Song*·Kyung-Ran Kim**·Chun-Man Park†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Jinjujungang High School

**Department of Arts Therapy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influencing values on life-respec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26 students from S middle school and Y middle school, both located in Gyeongnam province.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40 students from S middle school, Control group-I consisted of 39 students from S middle school, and Control group-II consisted of 47 students from Y middle school. The experimental group was provided with 12 incidences of the life-respect education program from April 1st to June 29th. One period took 45 minutes and proceeded according to a structure of introduction, development, and consolidation.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a life-respect education program, Control group-I received health teaching, but Control group-II didn't receive any special education except what was regularly part of their curriculum. The content of the life-respect education program included the following topics: value of life-respect, respect for human life and ethics, life-respect campaign, having a healthy mind, suicide prevention, dealing with crisis,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bortion and life-respect, social weak minority consideration, death, brain death,

* 이 논문은 송미경의 박사학위논문(지도교수 박천만)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접수일 : 2014년 4월 7일, 수정일 : 2014년 4월 23일, 채택일 : 2014년 4월 26일

교신저자 : 박천만(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Tel: 053-580-5451 FAX: 053-580-5451 E-mail: cmpark@kmu.ac.kr

euthanasia, life cycle and task, and forest activities.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as pre and post-tests which consisted of questions regarding death anxiety, suicide risk, and values on life-respect. The pre and post-tests were analyzed with t-tests, paired t-tests, ANOVAs, and factor analyses using SPSS 18.0.

Results: 1.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experimental group($p<.0001$) and control group-I ($p<0.05$) in value and attitude about life-respect. On the other hand, it was shown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test in control group-II. 2. The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tests after education on values and attitudes toward life-respect using ANCOVA showe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among the three groups.

Conclusion: the life-respect education program which was conducted over 12 meeting with middle school students had an positive effect, which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fostering values on life-respect.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life-respect education program this study used is effective for fostering value of life-respect and decreasing suicide risk.

Key words: Life-Respect Education, Values on Life-Respect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생명은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을 구분해 주는 목숨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학자들이 연구해 온 생명에 대한 수많은 담론들이 있어 왔지만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생명을 바라보는 많은 관점과 논의들은 결국 생명은 가치가 충분하며 근본적으로 존귀한 것으로 귀결된다. 즉, 생명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인간의 생명을 넘어서 모든 생명에 대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생명교육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의 과제이다. 단순히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 인간의 생명을 위한 지식으로 질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4).

죽음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류

미경과 이운주 2008). 특히, 청소년기에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며, 죽음을 자신과 동떨어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죽음에 대해 금기시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죽음의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성인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김영아와 권영숙 2009). 그러므로 연령에 맞는 죽음교육으로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고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김숙남 2005). 최근 김도희(2010)와 이찬숙 등(2010)은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수·학습법의 지속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이정(2003)과 Wass (2004)는 죽음교육의 다 학제간 연구수행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죽음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죽음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을 보다 의미 있게 꾸릴 수 있도록 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미래를 제시하며 삶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비행행위를 최소화하여 정서에 큰 도움을 준다(문영희 2007).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보다 2.5배 높으며 자살증가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중 4위이며 특히,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 31개 회원국의 아동청소년(10-24세) 자살률은 2000년 7.7명에서 2010년 6.5명으로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6.4명에서 9.4명으로 46.9% 증가해, 10년 만에 순위가 18위에서 5위로 뛰어올랐다. 증가율로는 칠레(52.9%)에 이어 두 번째다(통계청 2013).

유명연예인과 저명인사의 잇단 자살에 대한 언론 매체의 집중 보도는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의 자살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자살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들의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 이외에도 유가족, 친구, 지역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지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래에 잠재인력의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예방과 위기상담을 위하여 현실에 맞는 예방에서 사후개입까지의 시스템의 구축(보건복지가족부 2009; 남기철 2006)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이병환과 김경수 2009). 또한 생명존중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하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한다(김신정 등 2010).

생명존중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은 우리사회의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에 대한 편견을 줄이며,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의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아울러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여 삶을 보다 의미 있게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죽음불안과 자살위험성 및 생명존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죽음불안과 자살위험성 감소 및 생명존중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의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중학생의 죽음불안과 자살위험성 감소 및 생명존중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생명존중의식과 생명존중태도를 분석한다.

둘째, 실험집단, 통제집단 I, 통제집단 II의 집단별 생명존중의식과 태도에 대한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 전·후의 변화를 비교한다.

셋째, 실험집단, 통제집단 I, 통제집단 II의 집단간 생명존중의식과 태도에 대한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 전·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영향을 검증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한 S중학교 1, 2학년 2개 학급 40명을 실험집단으로, 다른 2개 학급 1, 2학년 39명을 통제집단 I로 구성하였으며, 인근지역의 Y중학교 1, 2학년 47명을 통제집단 II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으로 선정된 2개 학급에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 I은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 II는 일반교과 외에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I·II는 학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생

명존중의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유사 실험연구로서 비동등대조군전후시차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 synchronized design)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3.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의 개요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구성은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와 한국생명의전화연맹 자살예방센터(2008)에서 개발한 ‘내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 프로그램과 경상남도교육청(2010)에서 발행한 단행본 ‘소중한 생명 행복한 미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2010)에서 개발한 ‘생명윤리 톡! 톡! talk!’ 콘텐츠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중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12회 차 교육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심리학, 보건학 전문가 2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표 1>.

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과 회전 시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직각회전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직각회전 방법 중 varimax 회전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고유 값이 1 이상이고, 요인 적재치가 0.4 이상이며 타 성분에 0.4 이하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사에서 Cronbach-값이 0.6 이상이 되는 요인은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1) 생명존중의식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2004)에서 청소년들의 생명존중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문항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존중의식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신뢰도

와 타당도를 검정한 결과 3개의 변수가 1개의 요인으로 묶여졌다. 신뢰도 검사에서 Cronbach-값이 0.689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총 누적분산 설명률이 61.683으로 요인분석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2) 생명존중태도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2004)에서 청소년의 생명존중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낙태’, ‘뇌사’, ‘자살’ 등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총 3문항인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존중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한 결과 3개의 변수가 1개의 요인으로 묶여졌다. 신뢰도 검사에서는 Cronbach-값이 0.604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분석방법

연구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생명존중의식,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험집단, 통제집단 I, 통제집단 II 별로 분리하여 χ^2 -test,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생명존중의식·태도에 대해서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세 집단 간의 생명존중의식·태도의 사전 동질성 검정을 위하여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의 중간 검사 내용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집단 별의 교육 전·후 값의 변화에 대한 검정을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세 집단 간의 교육 전·후 값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위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er. 18.0 Windows로 분석하였다.

<표 1>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 개요

교육 제목	생명존중교육	교육 대상	H군 소재 S중학생 1, 2학년 40명
교육 강사	송미경	교육 기간	2011 . 4 . 1 ~ 2011 . 6 . 29
		교육 시간	1회 45분
교육 목표	생명존중교육 실시로 죽음불안과 자살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PT, 동영상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시킨다. ·만들기, 캠페인, 토론, 숲 체험 등 실질적인 활동중심 교육으로 생명존중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모둠활동 응집력 강화 및 활발한 참여를 위해 중간 feed back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	1회	생명의 소중함 - 생명의 탄생과 신비, 자신의 소중함, 생명사랑 서약식	
	2회	생명존중 윤리의식 - 생명존중 및 생명경시 사례, 생명존중 윤리의식	
	3회	생명사랑의 날 캠페인 - 거리행진 유인물 배부 및 홍보, 자연 환경정화 활동	
	4회	건강한 마음 만들기 - 우울의 이해, 원인, 대처방법, 우울한 마음 극복하기	
	5회	자살 예방 - 자살 실태, 심각성, 자살의 올바른 이해	
	6회	자살위기 대처법 - 자살위기 대처방법, 자살 경고 sign, 생명지킴이 역할·활동	
	7회	학교폭력 예방 - 학교폭력의 올바른 이해 및 대처 방법, 분노, 갈등 조절	
	8회	낙태와 생명존중 - 낙태의 실태, 문제점, 올바른 성문화,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	
	9회	사회적 소수자·약자 배려 -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실태, 문제점, 도움 및 해결 방안	
	10회	죽음, 뇌사, 안락사 - 뇌사, 안락사 개념, 윤리적, 법적 논쟁점	
	11회	생애주기 과정 및 과제 - 생애주기 과정 및 과제, 죽음의 이해와 나의 묘비명 작성	
	12회	숲 체험 활동 - 생명의 다양성 인식 및 자연 친화적인 태도 갖기, 소감문 작성	

·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는 실험집단이 40명, 통제 집단 I 이 39명, 통제집단II가 47명으로 총 126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로는 ‘남자’가 51.6%, ‘여자’가 48.4%이었고, 연령별로는 ‘13세’가 57.1%, ‘14세’가 42.9%이었다. 가족 수는 ‘4명’이 38.9%, ‘5명’이 32.5%, ‘6명’이 11.1% 순이었으며, 형제 순서에서 ‘첫째’가 43.7%로 가장 높았고, 대상

자의 96%가 친한 친구가 있다고 답하였다. 성적은 ‘중위권’이 50.8%이었고, 경제 수준은 ‘중’이 61.1%이었다. 죽음경험은 대상자의 60.3%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경험이 있다’라고 하였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경험 시기로 ‘초등학교 때’가 33.3%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의 64.4%가 종교가 있었으며, ‘불교’ 41.3%, ‘기독교’ 18.3%, ‘천주교’ 4.8% 순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측정 항목 모두에서 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확인되었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집단별			전체 명(%)	χ^2	p-value
		실험집단	통제집단 I	통제집단 II			
성별	남	22(33.8)	20(30.8)	23(35.4)	65(51.6)	0.320	0.852
	여	18(29.5)	19(31.2)	24(39.3)	61(48.4)		
나이	13세	23(31.9)	22(30.6)	27(37.5)	72(57.1)	0.012	0.994
	14세	17(31.5)	17(31.5)	20(37.0)	54(42.9)		
가족 수	3명 이하	2(16.7)	1(8.3)	9(75.0)	12(9.5)	17.905	0.022
	4명	15(30.6)	20(40.8)	14(28.6)	49(38.9)		
	5명	11(26.8)	12(29.3)	18(43.9)	41(32.5)		
	6명	5(35.7)	4(28.6)	5(35.7)	14(11.1)		
	7명 이상	7(70.0)	2(20.0)	1(10.0)	10(8.0)		
형제 순서	첫 번째	19(34.6)	13(23.6)	23(41.8)	55(43.7)	3.808	0.703
	두 번째	15(30.6)	19(38.8)	15(30.6)	49(38.9)		
	세 번째	4(23.5)	6(35.3)	7(41.2)	17(13.5)		
	네 번째 이상	2(40.0)	1(20.0)	2(40.0)	5(4.0)		
친구 유·무	있다	38(31.4)	39(32.2)	44(36.4)	121(96.0)	2.442	0.295
	없다	2(40.0)	0(0.0)	3(60.0)	5(4.0)		
성적	상	10(30.3)	11(33.3)	12(36.4)	33(26.2)	0.311	0.989
	중	20(31.2)	19(29.7)	25(39.1)	64(50.8)		
	하	10(34.5)	9(31.0)	10(34.5)	29(23.0)		
경제 수준	상	7(28.0)	10(40.0)	8(32.0)	25(19.8)	1.421	0.841
	중	25(32.5)	23(29.9)	29(37.6)	77(61.1)		
	하	8(33.3)	6(25.0)	10(41.7)	24(19.1)		

항목	구분	집단별			전체 명(%)	χ^2	p-value
		실험집단	통제집단 I	통제집단 II			
죽음 경험	유	26(34.2)	19(25.0)	31(40.8)	76(60.3)	3.183	0.204
	무	14(28.0)	20(40.0)	16(32.0)	50(39.7)		
죽음 경험 시기	초등학교 입학 전	9(64.3)	3(21.4)	2(14.3)	14(11.1)	8.497	0.075
	초등학교 때	10(23.8)	12(28.6)	20(47.6)	42(33.3)		
	중학교 때	7(35.0)	4(20.0)	9(45.0)	20(15.9)		
	없음	14(28.0)	20(40.0)	16(32.0)	50(39.7)		
종교 유·무	천주교	2(33.3)	2(33.3)	2(33.3)	6(4.8)	2.202	0.900
	기독교	7(30.4)	6(26.1)	10(43.5)	23(18.3)		
	불교	19(36.5)	14(27.0)	19(36.5)	52(41.3)		
	없음	12(26.7)	17(37.8)	16(35.5)	45(35.6)		
계		40(31.7)	39(31.0)	47(37.3)	126(100.0)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존중의식과 태도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 전 생명존중의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 전 생명

존중의식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4.00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생명존중의식은 성별, 연령, 가족 수, 형제 순서, 친구 유·무, 성적, 경제 수준, 죽음경험 유·무, 죽음경험 시기, 종교 유·무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 전 생명존중의식 및 태도

특성	구분	전체 명(%)	의식		태도	
			mean±SD	t, F	mean±SD	t, F
성별	남	65(51.6)	3.93±0.95	-1.035	4.05±0.62	3.142**
	여	61(48.4)	4.09±0.76		3.72±0.58	
나이	13세	72(57.1)	3.88±0.90	-1.907	3.86±0.58	-0.579
	14세	54(42.9)	4.17±0.78		3.93±0.67	
가족 수	3명 이하	12(9.5)	3.78±1.05	0.619	3.72±0.63	0.458
	4명	49(38.9)	4.14±0.94		3.91±0.70	
	5명	41(32.5)	3.96±0.84		3.93±0.54	
	6명	14(11.1)	3.88±0.78		3.95±0.63	
	7명 이상	10(8.0)	3.97±0.33		3.73±0.52	

특성	구분	전체 명(%)	의식 mean±SD	t, F	태도 mean±SD	t, F
형제 순서	첫 번째	55(43.7)	4.01±0.89	0.311	3.82±0.62	0.665
	두 번째	49(38.9)	3.94±0.94		3.89±0.63	
	세 번째	17(13.5)	4.10±0.62		4.04±0.64	
	네 번째 이상	5(4.0)	3.80±0.65		4.07±0.44	
친구 유·무	있다	121(96.0)	4.01±0.88	0.190	3.90±0.63	1.313
	없다	5(4.0)	3.93±0.37		3.53±0.30	
성적	상	33(26.2)	4.14±0.73	0.558	3.77±0.65	2.341
	중	64(50.8)	3.96±0.93		4.01±0.58	
	하	29(23.0)	3.94±0.86		3.77±0.64	
경제 수준	상	25(19.8)	4.07±0.73	0.167	3.85±0.63	0.105
	중	77(61.1)	3.97±0.94		3.91±0.60	
	하	24(19.1)	4.06±0.75		3.86±0.70	
죽음 경험	유	76(60.3)	4.05±0.84	0.687	3.92±0.64	0.619
	무	50(39.7)	3.94±0.91		3.85±0.60	
죽음경험 시기	초등학교 입학 전	14(11.1)	4.21±0.75	0.347	4.02±0.75	0.987
	초등학교 때	42(33.3)	4.02±0.78		3.96±0.62	
	중학교 때	20(15.9)	3.98±1.02		3.75±0.58	
	없음	50(39.7)	3.94±0.91		3.85±0.60	
종교 유·무	천주교	6(4.8)	4.06±1.08	0.401	4.06±0.83	2.620
	기독교	23(18.3)	3.83±0.94		3.71±0.50	
	불교	52(41.3)	4.05±0.82		4.05±0.55	
	없음	45(35.6)	4.04±0.86		3.77±0.69	
계		126(100.0)	4.00±0.82		3.88±0.60	

**p<0.01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 전 생명존중태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 전 생명존중태도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88점이었다. 연구대상자에 따른 생명존중태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생명존중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 가족 수, 형제 순서, 친구 유·무, 성적, 경제 수준, 죽음경험 유·무, 죽음경험 시기, 종교 유·무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표 3>.

3.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의 효과검정

1) 집단 간 교육 전 비교

(1) 집단 간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교육 전 비교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세 집단 간의 교육 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확인되었다<표 4>.

<표 4> 집단 간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교육 전 비교

요인	집단구분	N	mean±SD	F	p-value
생명존중의식	실험집단	40	4.00±0.73	0.059	0.943
	통계집단	39	4.04±0.97		
	통계집단	47	3.98±0.90		

(2) 집단 간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교육 전 비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확인되었다<표 5>.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세 집단 간의 교육 전 비교에

<표 5> 집단 간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교육 전 비교

요인	집단 구분	N	mean±SD	F	p-value
생명존중태도	실험집단	40	3.96±0.56	1.390	0.253
	통계집단	39	3.75±0.63		
	통계집단	47	3.94±0.65		

2) 실험집단의 교육 전·후 비교

(1) 실험집단의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교육 전·후 비교

실험집단의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교육 전의 평균

이 5점 만점에 4.00점이었고 교육 후의 평균이 4.53점으로($p<0.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실험집단의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교육 전·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생명존중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표 6>.

<표 6> 실험집단의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교육 전·후 비교

요인	교육 전·후	N	mean±SD	교육 전·후 차이	
				mean±SD	t
생명존중의식	전	40	4.00±0.73	-0.53±0.90	-3.680***
	후	40	4.53±0.45		

*** $p<0.001$

(2) 실험집단의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교육 전·후 비교

실험집단의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교육 전의 평균이 5점 만점에 3.96점이었고 교육 후의 평균이 4.51

점으로($p<0.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실험집단의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교육 전·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생명존중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표 7>.

<표 7> 실험집단의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교육 전·후 비교

요인	교육 전·후	N	mean±SD	교육 전·후 차이	
				mean±SD	t
생명 존중 태도	전	40	3.96±0.56	-0.55±0.57	-6.128***
	후	40	4.51±0.33		

***p<0.001

3) 통제집단 I의 교육 전·후 비교

(1) 통제집단 I의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교육 전·후 비교

통제집단 I의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교육 전의 평

균이 5점 만점에 4.04점이었고 교육 후의 평균이 4.39점으로(p<0.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통제집단 I의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교육 전·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생명존중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표 8>.

<표 8> 통제집단 I의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교육 전·후 비교

요인	교육 전·후	N	mean±SD	교육 전·후 차이	
				mean±SD	t
생명존중의식	전	39	4.04±0.97	-0.35±1.01	-2.164*
	후	39	4.39±0.50		

*p<0.05

(2) 통제집단 I의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교육 전·후 비교

통제집단 I의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교육 전의 평균이 5점 만점에 3.75점이었고 교육 후의 평균이

4.06점으로(p<0.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통제집단 I의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교육 전·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생명존중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표 9>.

<표 9> 통제집단 I의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교육 전·후 비교

요인	교육 전·후	N	mean±SD	교육 전·후 차이	
				mean±SD	t
생명존중태도	전	39	3.75±0.63	-0.31±0.91	-2.113*
	후	39	4.06±0.61		

*p<0.05

4) 통제집단Ⅱ의 사전·사후 비교

(1) 통제집단Ⅱ의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통제집단Ⅱ의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사건의 평균이 5점 만점에 3.98점이었고 사후의 평균이 3.80점으로 ($p=0.202$)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0>.

<표 10> 통제집단Ⅱ의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요인	사전·사후	N	mean±SD	사전·사후 차이		t	p-value
				mean±SD			
생명존중의식	전	47	3.98±0.90	0.18±0.94		1.293	0.202
	후	47	3.80±0.63				

(2) 통제집단Ⅱ의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5점 만점에 3.94점이었고 사후의 평균이 3.94점으로 ($p=0.956$)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1>.

통제집단Ⅱ의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사건의 평균이

<표 11> 통제집단Ⅱ의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요인	사전·사후	N	mean±SD	사전·사후 차이		t	p-value
				mean±SD			
생명존중태도	전	47	3.94±0.65	0.01±0.88		0.056	0.956
	후	47	3.94±0.55				

4. 집단 간 생명존중의식과 태도에 대한 교육 효과

1) 집단 간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교육 전·후 차의 비교

생명존중 교육 후 세 집단 간의 교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 전 검

사 점수를 공변량(covariate)으로 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교육 전 생명존중의식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Ⅰ과 통제집단Ⅱ에 비해 생명존중의식의 교육 전·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집단 간 교육 전·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2.871$, $p<0.001$).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집단 간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교육 전·후 차의 비교

요인	집단 구분	N	mean±SD	F
생명존중의식	실험집단	40	-0.53±0.90	22.871***
	통제집단	39	-0.35±1.01	
	통제집단	47	0.18±0.94	

***p<0.001

2) 집단 간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교육 전·후 차의 비교

생명존중 교육 후 세 집단 간의 교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 전 검사 점수를 공변량(covariate)으로 하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I

과 통제집단 II에 비해 생명존중태도의 교육 전·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집단 간 교육 전·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4.297, p<0.001).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집단 간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교육 전·후 차의 비교

요인	집단 구분	N	mean±SD	F
생명존중태도	실험집단	40	-0.55±0.57	14.297***
	통제집단	39	-0.31±0.91	
	통제집단	47	0.01±0.88	

***p<0.001

· 고찰

현재 우리사회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폭력과 살인, 자살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생명존중의식 부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의 긴급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이영호 2007).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과도기적 위치에서 비롯된 혼란과 긴장상태가 된다(박재홍과 김성환 2011). 입시위주의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사회적 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김승훈 2011) 자살이나 집단폭력 등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 세대를 감안할 때 청소년기의 생명존중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시급한 과제이다. 생명존중의식은 나이에 따라 발달되기보다는 삶의 체험과 교육을 통하여 생명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깊어감에 따라 확장된다(조은상 201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생명존중의식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가족 수, 형제 순서, 친구 유·무, 성적, 경제 수준, 죽음경험 유·무, 죽음경험 시기, 종교 유·무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연구 대상자들이 비슷한 연령이었고, 농촌지역이라는 동일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존중의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전·후 비교에서 실험집단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생명존중의식의 하위요인인 '성별', '학력',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생명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본 연구의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에서는 우리문화 속에서의 생명경시사례를 조사하여 모둠별 발표활동을 통하여 생명경시현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또한 자살 및 낙태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캠페인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장애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봄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대상자들의 생명존중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보건교육 집단인 통제집단 I에서도 생명존중의식과 태도에서 유의한 증가($p < 0.05$)를 보였다. 이는 보건교육 내용 중에 건강관리 방법을 익혀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도록 하였고 응급처치교육에서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교육을 통하여 하나뿐인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것이 생명존중의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는 학교보건교육 수업을 위한 교과과정에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제집단 I 이 실험집단과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정보 누수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생명존중태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전·후 비교에서도 실험집단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하위요인인 '낙태', '자살', '뇌사' 모두에서 생명존중태도

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호되어야 하고 배아 역시 잠재적인 지위를 갖는 존재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김항미 2009). 또한 태아는 수정의 순간부터 이미 생명을 지닌 존재이므로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영섭 2006). 더불어 안락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안락사에 대해 편견이 없도록 토론활동을 포함한 교육내용으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의식과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Ozkara 등, 2004).

본 연구에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한 피임교육, 청소년의 임신에 대한 문제점, 임신을 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낙태에 대한 토론활동, 뇌사에 대한 역할극, 자살에 대한 진실게임 등의 교육활동이 생명존중과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도록 지도한 것이 생명존중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정과 자살, 폭력, 안전사고 등에 대한 불감증은 사회에 전반적으로 생명존중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인성교육보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성적 비관이나 집단 따돌림, 폭행, 자살로 이어지는 현 세대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의식과 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에 관한 갈등문제들을 다양하게 실제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주도적인 토론과 활동중심으로 생명존중의식의 내면화와 생활화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본 교육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생명존중의식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 자료가 생명존중의식을 증가시켜 죽음불안

이나 자살위험성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2개 중학교의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통제집단 I에 실시된 보건교육 내용은 보건교육교과내용의 일부를 12차시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췌하였으므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보건교육의 내용이 보건교육의 전체내용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존중교육은 일부 교과목에 내용이 분산되어 있어 실생활과 연계성이 부족하다.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통합적인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생명존중교육의 내용면에서 인간생명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의 교육과 생명윤리문제, 죽음준비교육까지 포함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인력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학교의 생명존중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경상남도교육청. 소중한 생명 행복한 미래. 문성인쇄사, 2010.
- 고영섭. 불교사학 및 응용불교: 불교의 낙태관. 한국불교학회 2006;45:307-363.
- 김도희. 국어 교과서를 활용한 죽음교육. 국어교육연구 2010;46:1-30.
- 김숙남. 죽음교육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보건교육 증진학회지 2005;22:141-153.
- 김승훈. 학생 죽음 앞에서도 경쟁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자화상, KAIST. 월간 한국노총 2011.
- 김신정, 강경아, 방경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인식하는 생명과 삶의 의미 내용분석. 아동간호학회지 2010;16:287-296.
- 김영아, 권영숙. 국내의 죽음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계명간호과학 2009;13:51-62.
- 김향미. 모자보건법 제 14조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9;52:487-489.
- 남기철. 청소년 자살문제와 위기개입. 학생생활연구 2006;25:97-116.
- 류미경, 이윤주.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죽음불안, 자살위험성,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논총 2008;7:47-64.
- 문영희. 비행청소년과 죽음교육의 과제. 교정복지연구 2007;10:185-203.
- 박재홍, 김성환. 청소년기 뇌 발달과 인지, 행동 특성. 생물치료정신의학 2011;17:11-19.
-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자살 DB 등 자살예방 정보센터 구축방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9.
-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한국생명의전화연맹 자살예방센터. 내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 경기: 교육과학사, 2008.
-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청소년 생명존중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4.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생명윤리 특! 특! talk! [eBook] . <http://www.bprc.re.kr>, 2010.
- 이병환, 김경수. 중학생의 자살생각과 공격성 및 귀인성향의 관계 분석. 열린교육연구 2009;17:323-342.
- 이영호. 청소년기의 특징과 비행 간의 심리사회적 통찰. 지역사회 2007;56:38-42.
- 이이정. 노인 학습자를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20. 이찬숙, 신혜경, 주현경. 그림책을 통한 죽음 교육이 아동의 인터넷 게임중독, 죽음 개념 및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010; 14:251-272.
21. 조은상.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 생명. *인간연구* 2011;20:43-67.
22. 통계청. 2010. 사망원인 통계결과. 서울: 통계청, 2010.
23.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 자살 사후개입 매뉴얼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24. Ozkara, E., M. Civaner, S. Oglak, and A. S. Mayda. Euthanasia education for health professionals in Turkey: students change their opinions. *Nursing Ethics* 2004;11:290-297.
25. Wass, H. A perspective on the current state of death education. *Death Studies* 2004;28:289-308.